

①마음에 드는 재료를 골라 콜라주를 만들어보는 시간. 한 아이가 뛰어나가더니 날개를 골라 어깨에 댔다. 뮤지컬 수업 시간은 잠시나마 자유를 느껴보는 시간이다.
 ②③④아이들이 만든 콜라주는 함께 바다에 가고 싶은 가족이나 행복으로 둘러싸인 집을 표현하고 있었다.



공동 창작의 과정에서 서로 간의 신뢰·책임감을 배워

국내 유일의 소년 교도소 김천교도소 프로젝트 ‘연’

추석 연휴가 하루 지난 9월 27일 10시. 국내 유일의 소년 교도소인 김천교도소를 찾았다.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인 대다수는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 등에 수용된다. 하지만 징역 또는 금고형의 형사처분을 받으면 이곳 소년 교도소에 수감된다. 취재 수첩과 볼펜, 카메라를 제외한 모든 개인 물품을 맡기고서야 소내로 입장이 가능했다.

낮선 긴장감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선 강당은 뜻밖에도 청소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19명의 청소년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뮤지컬의 극본을 만들고 있었다. ‘프로젝트 연’의 이유정(44) 대표는 칠판에 크게 ‘내가 가고 싶은 곳’이라고 썼다.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을 생각할 때의 마음을 말해주세요.” 수의(囚衣)를 입은 아이들이 잠시 주저하더니 곧 목소리를 높였다. “들뜬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그립다” 유희씨는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감정을 칠판에 적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이 이어졌다. 어떤 색깔·소리·사람·냄새·사물이 떠오르느냐는 질문에 아이들은 가고 싶은 곳의 이미지를 끌어냈다.

네온사인에 있는 파란색, 차를 타고 달릴 때의 바람소리·동생 냄새·가족... 질문과 답이 한참 오가는 사이 칠판이 가득 찼다. 유희씨의 표정이 만족스럽다. “방금 여러분들이 한 얘기가 뮤지컬의 각본이 될 거예요.”

수업 내내 아이들을 지켜보는 황영복(55) 교위의 표정에서도 웃음이 지나간다. “아이들이 뮤지컬을 배우기 시작한 지 5주가 됐어요. 전에 무용수업을 할 때는 땀으로 흥뻐 찼더니, 오늘은 이렇게 말들을 잘하네요. 이렇게 신난 모습은 처음이에요.”

아이들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인 뮤지컬 창작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소년교도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에게 뮤지컬이 의미가 있을지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전 진행했던 극본 작성 수업을 예로 들며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일종의 성찰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 창작을 하면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약속, 신뢰와 책임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무엇보다 무대에 오르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고취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뮤지컬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김천의 지역극단 ‘삼산이수’의 이현욱(33)씨는 “뮤지컬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하루하루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며 “아이들이 사회에서 생활할 때에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점심을 먹고 다시 모인 아이들. 이번엔 오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콜라주로 표현해보는 시간이다. 눈앞에 놓인 다양한 재료들을 본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진다. 네 개 모듬으로 모인 아이들이 색깔의 재료들을 오리고 붙이고 반죽을 하는 동안 선생님들을 만났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수감생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아주자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취지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예술강사들도 이 프로젝트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었다. 임형수(43) 선생님은 이 뮤지컬 프로젝트의 답이다.

“대학 때 연극을 하고 20년이 됐어요. 그동안 연극을 왜 하고 사는지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가

르치다 보면 힘이 나요. 답배도 끊었어요. 이런 일 더 오래 하려고요.” 아이들은 선생님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를 작업에 열심이다.

잠시 후 만들어진 콜라주 작품 네 개 주위로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사뭇 진지하게 작품에 대한 평이 오고 간다. 그 사이에 농담도 빠지지 않는다. 상철(가명, 19)이네 모듬은 ‘꿈이 멈춰버린 시간’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아가야 하고, 그러면 성장하잖아요. 반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더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상철이의 설명에 모두가 진지해지려는 순간 정영(가명, 21)이가 손사래를 친다. “그럼 여기에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거냐? 그러면 우리 큰일 나. 빨리 나가야지.” 둘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웃었다.

아이들이 만든 뮤지컬은 올해 12월에 무대에 올 예정이다. 김천소년교도소나 김천문화예술회관이 공연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벌써 자신감이 넘친다. 주성(가명, 21)이는 12월에 예정된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관객이 500명 봐도 떨지 않을 자신 있어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젝트에 예술감독으로 참여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연극학과 김종석(44) 교수는 “한 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는 힘을 길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대권 더나은미래 기자 kodk77@chosun.com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며 자기를 되돌아보고 성찰하게 돼

뮤지컬로 12월 무대 올 예정 무대 경험으로 자신감 되찾을 것

한 번 범죄로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사회가 아이들을 도와야...

“사회발전을 위해 일하는 경영학도를 양성한다”

네덜란드 노매즈 학교



노매즈 학교의 교장 피터 스피더(가운데)씨와 워크숍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한동안 외국 경영대학원(MBA)은 출세의 지름길이었다. 외국대학의 경영학 석사학위만 있으면 컨설팅 회사나 투자 회사에 취직해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학교 입학에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에 1000만원씩 쓴다는 소식이 들렸다. 하지만 유럽, 미국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기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일하는 경영학도를 양성하는 학교가 등장해 많은 젊은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1991년 덴마크 오르후스에서는 사회적 혁신을 추구하는 청년 기업가들을 키우기 위한 카오스파일럿(KaosPilots)이 생겼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여러 산업 분야를 접목한 스웨덴의 하이퍼아일랜드(Hyperisland), 남아공의 베가스쿨(Vegaschool) 등이 생겼다. 이 학교 중 가장 최근에 세워진 네덜란드 노매즈(Knowmads) 학교가 창의성을 주제로 열린 2010 서울청소년창의성대회에 초청받아 한국을 찾았다.

“우리 교육의 목적은 보고서를 잘 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매즈 학교의 교장 피터 스피더(Pieter Spinder·43)씨는 창의적 기업가 양성에 관심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린 워크숍 첫날에 노매즈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7개의 다른 나라에서 온 14명의 노매즈 학생들은 그가 따온 여러 회사의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한다.

스피더씨는 얼마 전 수행했던 네덜란드항공(KLM)의 경영 전략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회사 임원들은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Mckinsey)의 결과물보다 노매즈의 것에 더 만족했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의 이유로 그는 무엇보다 자율적인 학교 분위기와 거기서 만들어진 창의적이고 공익적인 아이디어를 꼽았다.

실제로 8일 동안 진행된 워크숍 기간 내내 참여자들은 특별한 교재나 교수법 없이 그들이 가져온 여러 실생활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며 고민을

해결해 나갔다. 충남대학교 박세상(25)씨는 자신이 하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 운동을 수업 주제로 삼았다. 박씨는 “특별한 학교 문화, 지역 문화가 없고 학교 주변에서 잠자하시는데 분들이 계속 떠나가는 게 안타까워 지역상권활성화 운동을 시작했다”며 “어떻게 이 운동을 수익창출과 연결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했는데 이번 수업에서 배운 ‘아이디어를 도출해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은 비즈니스에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만족했다. 박씨와 조원일

은 이 프로젝트의 미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신문과 잡지의 기사들을 자르고 붙이며 ‘미래시간표’를 만들었다.

노매즈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는 ‘다양성’이다. 이번 2월 입학한 노매즈 학교의 유일한 한국 학생 구슬(25)씨는 “비록 12명의 학생이지만 그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흡수하는 것이 힘들었다”면서 “하지만 이 다양성을 조합했을 때 신기하고 영동한 것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처럼 노매즈는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함께 즐기며 서로의 최선을 이끌어내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다. 피터 스피더씨는 “기업들이 점점 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며 “누구고나 일할 수 있는 용감하고 책임감 있고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에게 세상이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기업가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물었다. 그는 무엇보다 “설립자가 어떤 에너지와 신념을 지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노매즈를 무엇인가 배우는 곳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플랫폼으로 여기에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사회적 기업가 양성과정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노매즈에 와서 비법을 전수받아주세요.”

신보경 더나은미래 기자 bo.shin@chosun.com

NGO 단신

‘심장병 예방 그린하트 워킹페스티벌’ 올림픽공원서 30일에 열려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과 사단법인 한국워킹협회 주최하는 ‘심장병예방 그린하트 워킹페스티벌’이 30일(토)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피크닉광장에서 열린다. 총 5km의 올림픽공원 산책로를 걸으며, 1:1 걷기자세측정·건강검진·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그린장터 등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워킹협회(www.walkingkorea.com)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HOPE 프로젝트’

도서·운동화 함께 나눠요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미지센터와 하이원 리조트는 ‘희망의 도서관 프로젝트’와 ‘희망의 운동화 나눔축제’를 합친 ‘HOP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희망의 도서관 프로젝트는 빈곤국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만드는 것으로 작년 캄보디아에 이어 올해는 네팔에 2호 도서관을 설립한다. 종교책이든 새책이든 기증할 영문도서를 30일까지 미지센터(www.mizy.net)로 보내면 된다. 희망의 운동화 나눔축제는 운동화에 그림을 그려서 빈곤국가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로 28일부터 31일까지 청계광장에서 만들어진 운동화를 전시한다.